영 매체 "빅클럽들 손흥민 무관심은 놀라운 일"

영국 매체가 유럽 빅클럽에 손흥민(토드넘)을 영입하라고 조언했다.

12일 'OSEN' 에 따르면 영국 '코트오프사이드' 는 전날 칼럼을 통해 "맨유는 해리 케인(토드넘)과 제이든 산초(도르트문트)의 능력을 동시에 갖췄음에도 유럽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손흥민을 영입하라." 고 권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자신의 최고 시즌을 보내고 있다. 8일 현재 리그에서 17골(리그 득점 단독 3위) 10도움을 올리는 등 총 22골 17도움을 올렸다. 특히 정규리그 17골은 차범근이 1985-1986시즌 레버쿠젠 시절 기록한 한국 선수 유럽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 기록과 타이를 이룬 것이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 도 손흥민의 능력을 인정했다.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러거는 모하메드 살라(리버풀)를 제치고 손흥민을 이번 시즌 최고 공격수 3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칼럼을 쓴 마크 브러스는 케인이 가진 득점력과 산초의 창출 능력을 동시에 지닌 손흥민이 맨유에 필요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맨유를 비롯해 다른 최고 구단들이 이번 여름 시장에 나온 케인과 다른 선수들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 이라고 의아해 했다.

브러스는 손흥민이 이렇듯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를 두가지로 들었다. 우선 그는 "손흥민의 몸값이 얼마일지 분명하지 않지만 토트넘이 쉽게 팔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케인과 함께 팀 간판인 손흥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아직 재계약이 시급하지 않지만 서둘러 새로운 계약서로 붙잡으려 하고 있다. 대폭 인상된 주급 인상도 보장한 상태다.

빅 클럽의 관심이 덜한 또 다른 이유는 그만큼 손흥민이 저평가 됐다는 뜻이다. 브러스는 "토트넘에서 케인의 뛰어난 활약에 가려진 한국 국가대표는 분명 현재 세계 축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한 명이며 실제로 그래왔다." 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브러스는 손흥민에 대해 "다양한 지역에서의 믿을 만한 득점력, 스피드, 기량, 침착성에 부지런함까지, 이번 시즌 유럽에서 팀 동료와 파트너십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 선수"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케인처럼 잘 다치지도 않는 보너스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손흥민은 최근 패션 매거진 '아레나 옴므' 커버를 장식했다. 이에 영국 데일리메일은 12일 "아레나 옴므가 축구스타를 표지 모델로 활용한 건 소수에 불과했다. 손흥민이 모델로 나선 건 그가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 라고 소개했다.

▲ 손흥민. 사진=페이스북(Heung Min Son - 손흥민 1st Vietnam Fanpage)

김광현, 한·미 통산 1,500 탈삼진 달성

▲ 김광현. 사진=mlb.com 캡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33)이 한·미 통산 1,500탈삼진이라는 큰 기록을 작성했다.

12일 '매일경제' 에 따르면 김광현은 전날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패밀리필드에서 열린 2021 MLB 정규시즌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에 올해 5번째 선발 등판해 5와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을 했다. 안타 5개를 맞는 동안 탈삼진 6개를 잡아냈다.

올해 들어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날이었다. 1회 선두 타자 콜턴 윙에게 좌중간 2루타를 허용했지만 상대 중심 타선을 2개의 삼진과 땅볼로 막으며 위기를 넘겼다. 이후 5회가 끝날 때까지 김광현은 1이닝에 주자를 한 명 이상 출루시키지 않는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다. 특히 구사 비율이 낮았던 체인지업을 적극적으로 섞어 던지며 유리한 볼 카운트로 이끌어간 게 주요했다. 패스트볼 구속도 최고 시속 148㎞로 올들어 가장 빨랐다.

하지만 6회 첫 타자까지 잡은 김광현은 2루타를 맞고 교체됐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88개 공을 던졌고 구위가 떨어지자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주저 없이 교체를 선택했다. 김광현의 평균자책점은 3.06에서 2.74까지 낮아졌다.

김광현은 이날 호투에도 불구하고 승수를 쌓지 못했다. 그래도 '김광현 선발 등판=팀 승리' 라는 기분 좋은 공식을 이어갔다. 세인트루이스 타선은 김광현이 마운드에 있는 동안 상대 에이스 프레디 페랄타에게 틀어막혔다. 이후 밀워키 투수가 바뀐 8회 초 공격에서 1대1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김광현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선발 등판한 12경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투수가 됐다. 김광현은 지난해 MLB에 데뷔한 이래 패전 투수가 된 적이 없다.

세인트루이스는 연장 11회 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며 경기에서 6대1로 승리했다. 개인 승수를 올리진 못했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올 시즌 김광현이 등판한 5경기에서 전부 이기고 있다. 김광현이 등판한 날 팀 성적은 지난해까지 합치면 11승2패다.

이날 김광현은 한미 통산 탈삼진 1,500개를 넘어섰다.

김광현은 한국 프로야구(KBO) 무대에서 12시즌 동안 탈삼진 1456개를 잡아냈다. KBO리그 통산 1673⅔이닝(298경기)에서 기록한 9이닝당 탈삼진은 7.83개였다.

이후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13경기 62이닝 동안 삼진 48개를 잡아냈다. 9이닝당으로 환산하면 6.97개다. 김광현의 올해 9이닝당 탈삼진은 9.39개로, 데뷔 시즌인 지난해(5.54개)보다 늘어났다. 올해만 놓고 보면 김광현의 탈삼진 행진이 KBO리그 12년 평균보다 빠르다.

낱말퍼즐 정답

	1 소		2 망	아	3 지		
4 오	매	불	망		5 장	6 소	
솔			7 대	쪽		강	
8 길	9 치		해		10 연	상	
	11 산	재		12 너		13 태	14 노
	치		15 개	비			가
	16 수	17 선		18 아	주	19 머	니
		20 주	머	니		슴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사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ning)
IRA'S IRA Rollover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